

셔틀콕 여자 단체 亞선수권 첫 우승

안세영 등 여자대표팀, 중국 3-0 완파…세계선수권 본선행 확정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선봉에 선 한국 여자 대표팀이 2026 아시아남녀단체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제패하고 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다.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은 8일 중국 칭다오 콘순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결승에서 중국을 3-0으로 완파했다.

그동안 일정과 컨디션 조절 등을 이유로 2군급 선수들을 파견하기도 했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 안세영을 비롯해 세계적인 상위 랭kers들을 출동시킨 '완전체' 라인업을 기동했다.

강력한 우승 의지를 드러낸 한국은 이로써 2016년 대회 창설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단체전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중심을 잡은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싱가포르(5-0 승)와 대만(4-1 승)을 잇달아 격파하며 조 1위로 본선에 올랐다.

이어 8강에서 말레이시아를 3-0으로 잡아웠고, 안세영이 휴식을 취한 준결승에서도 인도네시아를 3-1로 물리치며 거침없는 기세를 이어갔다.

이날 경기에서도 안세영이 첫 주자로 나서 한 챔시(38위)를 39분 만에 2-0(21-7 21-14)으로 완파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여자복식 백하나(인천국제공항)-김혜정(삼성생명) 조가 자이아판-장수선 조를 2-0(24-22 21-8)로 놀렸고, 김가은(삼성생명)-세계랭킹 17위)이 쉬원경(127위)을 2-1(19-21 21-10 21-17)로 물리쳐 5전 3승제 방식에 따라 우승을 완성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아시아 지역 최고 권위의 단체전으로, 세계 단체 선수권 아시아 예선을 겸한다.

이번 대회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 한국 여자



안세영이 지난 1월 18일 인디라 간디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단식 결승에서 중국 왕조이 선수를 꺾은 뒤 환호하고 있다.

점프 실수 차준환 '예방주사' 맞았다

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팀 이벤트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차준환이 연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계올림픽 팀 이벤트 7위로 결승 진출 실패

11일 오전 개인전 쇼트 출전 "실수 없이 할 것"

"실수가 아쉽지만 개인 전까지 아직 이틀의 시간이 있으니 회복 잘해서 좋은 경기 하겠습니다."

한국 피겨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서울시청)이 팀 이벤트(단체전) 쇼트 프로그램에서 트리플 악셀에서 실수가 좀 아쉽긴 하지만 개인전까지 이틀의 시간이 있는 만큼 잘 회복해서 더 나은 경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차준환은 8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팀 이벤트 남자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41.78점에 예술점수(PCS) 41.75점을 합쳐 83.53점으로 10명 가운데 8위로 밀렸다.

차준환은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포인트 3점을 따는데 그치면서 한국은 팀 이벤트에서 14점으로 10개국 중 7위에 그쳐 상위 5개 팀만 나가는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연기를 마치고 공동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만난 차준환은 "일단 이번 올림픽에서 저의 첫 경기라 최선을 다했다"라며 "세 번째 점프인 트리플 악셀에서 실수가 좀 아쉽긴 하지만 개인전까지 이틀의 시간이 있는 만큼 잘 회복해서 더 나은 경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차준환은 이날 첫 점프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뛰고, 이어진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안전하게 착지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

하지만 세 번째 과제인 트리플 악셀을 싱글로 처리하는 실수로 0점을 받아 점수에 큰 손해를 보고 순위가 밀렸다.

차준환은 이에 대해 "도약하는 순간에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다"며 "예방주사라고 생각한다. 사대륙선수권대회 때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려고 열흘 정도 집중 훈련을 했다. 오늘 실수도 평소에 하던

것은 아니라 아쉽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잘해 나간 것 같다. 개인전까지 잘 연습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준환은 한국시간 11일 오전 개인전 쇼트 프로그램 연기를 펼친다.

연기를 앞두고 멀렸다는 질문에는 "약간의 긴장감은 있었다"며 "동료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실수가 있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전에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기분 좋은 긴장감이었다. 오늘 실수는 긴장감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안 맞았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해서 개인전 때는 실수 없이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올림픽을 맞아 차준환은 어느 때보다 올림픽 분위기를 즐기고 있다고 했다.

차준환은 "개회식도 처음 참가하고 단체전까지 뛰면서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잘 즐기고 있다"며 "일단 점심과 저녁에 배달되는 한식 도시락을 정말 잘 먹고 있다. 평소에 만나기 어려운 다른 종목 선수들과도 교류하는 것들도 정말 좋다"고 미소를 지었다.

/연합뉴스

안병훈, LIV 골프서 한국 최초 '톱10'

데뷔전서 개인 9위·단체전 8위

안병훈이 LIV 골프 2026시즌 개막전을 공동 9위로 마쳤다.

안병훈은 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골프클럽(파72·7464야드)에서 열린 LIV 골프 리야드(총상금 3000만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3개로 5언더파 67티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의 성적을 낸 안병훈은 브랜던 그레이스(남아프리카공화국), 루커스 히버트(호주)와 함께 공동 9위에 올랐다.

이로써 안병훈은 2022년 출범한 LIV 골프에서 한국 국적 선수로는 처음 '톱10' 성적을 냈다.

한국 선수가 LIV 골프에 뛰 것은 지난해 장유빈, 송영한, 김민규 3명이 있었고 최고 성적은 장유빈이 작년 7월 영국 대회 공동 21위에 오른 것 이었다.

다만 뉴질랜드 국적의 교포 선수 대니 리가 2023년에 한 차례 우승한 바 있다.

2025시즌까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었던 안병훈은 올해 새로 만들어진 코리안 골프클럽 키팅을 맡아 LIV 골프로 이적했고, LIV 골프 데뷔전에서 상위권 성적을 올렸다.

안병훈과 송영한, 김민규, 대니 리로 구성된 코리안 골프클럽은 단체전에서는 44언더파를 학자

해 13개 팀 중 공동 8위를 차지했다.

개인전 우승은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타를 친 엘비스 스마일리(호주)가 차지했다.

지난 시즌 DP 월드투어에서 활약한 스마일리 역시 LIV 골프로 옮기고 치른 첫 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했다.

스마일리는 개인전 우승 상금 400만달러와 소속팀 리퍼플 골프클럽의 단체전 우승 상금 300만달러의 25%인 75만달러 등 한국 돈으로 69억6천만원을 받는다.

또 여기에 단체전 우승 보너스 100만달러는 주장 재량에 따라 팀원들이 나눠 갖기 때문에 이 역시 25%씩 분배한다고 가정하면 스마일리가 받는 돈은 총 500만달러(약 73억2000만원)로 늘어난다.

2002년생인 스마일리가 DP 월드투어에서 번 상금 총액인 111만1525유로, 한국 돈 19억2000만원의 4배 가까운 수입을 이번 한 대회로 옮린 셈이다.

온 람(스페인)이 1타 차 준우승을 차지했다.

코리안 골프클럽 소속 선수들은 안병훈 외에 송영한이 11언더파 277타로 공동 30위, 김민규와 대니 리는 8언더파 280타로 공동 41위에 올랐다.

LIV 골프 다음 대회는 12일 호주에서 개막하는 LIV 골프 애들레이드다.

/연합뉴스

유승은,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첫 메달 도전

땐 한국 선수가 없었다.

남자부에선 평창 대회 때 이민식이 출전했으나 결선엔 오르지 못했고, 베이징 대회 때 마찬가지로 한국 선수가 나서지 못했다.

유승은이 이번 대회에서 결선에 진출한다면 그 자체로 한국 최초의 역사가 된다.

예선에선 1·2차 시기 중 더 나은 점수가 최종 점수로 반영되며, 상위 12명이 10일 오전으로 예정된 결선에 오른다.

2008년생인 유승은은 2023년 국제스키연맹(FIS) 세계 주니어 스노보드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빅에어 준우승을 차지한 기대주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콜로라도주 스팀보트 스프링스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2위에 오르며 월드컵 첫 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 선수가 스노보드 월드

컵 빅에어 종목에서 메달권에 진입한 건 유승은이 처음이다.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선 평창과 베이징 대회 모두 오스트리아의 앙나 가서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가서는 이번 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이지만, 34세로 이 종목 선수로는 고령인 데다 부상 여파로 월드컵 시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3연패 달성을 쉽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합뉴스



줄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5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티움 콘서트 I
Bassoon
일시 : 2026-02-13(금) 11:00,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41

